원희룡 장관, "차량 파손 행위자 엄벌 조치해야"

- 운행 차량에 대한 돌 투척 행위 관련 경찰 보고받아 -

□ **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**은 11월 26일 오전 07시경에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**운송 방해행위**에 대한 **경찰의 현장 보고**를 받으며 부산신항에서의 **현장 대응 3일차 일정**을 시작하였다.

○ 경찰 보고에 따르면, 오늘 오전 07시부터 약 15분간, 2차례에 걸쳐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량이 돌로 추정되는 물체에 의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.

○ 이번 사고는 피해차량의 운전자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, 사고 발생 즉시 피해차량 운전자가 자리를 이탈하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. 경찰은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**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**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.

□ **원 장관**은 "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 대한 **불법적인 폭력 행위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**"이라고 밝히며,

○ "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분들의 안전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"는 말과 함께 "철저하게 수사하여 불법행위자를 찾아 **엄벌에 처해 달라**"고 경찰에 당부하였다.

○ 아울러 "정부는 정상 운송 중에 발생한 불법방해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 **피해에 대해 보상**해드리고 있으므로, 관할 지자체와 협조하여 해당 화물차주분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할 필요가 있다"고 덧붙였다.

2022.11.26.

국토교통부 대변인